제 6 장

농어촌 지역의 인구 · 산업 · 일자리 동향과 전망

김정섭* · 임지은** · 박천수***

1. 농어촌 지역의 인구
1.1. 인구 증감 추이
1.2. 도시와 농어촌 사이의 인구이동
1.3. 마을 거주 인구
1.4. 고령화 실태
1.5. 가구 실태
2. 농어촌의 산업과 일자리
2.1. 취업자 수
2.2. 산업 부문별 고용 증감 추이
2.3.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전망
3. 시사점
3.1. 농어촌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시사점
3.2. 농어촌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jskkjs@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청연구원. jelim@krei.re.k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econodr@krivet.re.kr

1 농어촌 지역의 인구

1.1. 인구 증감 추이

○ 1970년대 이후로 감소하기만 했던 농어촌 인구 변화 추세가 최근 들어 바뀌었다. 2010년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2005년보다 약간 증가한 876만 명을 기록하였다 〈표 6-1〉.

○ 1995년 이후로 읍 인구가 계속 증가한 반면에 면 인구는 계속 감소하였다. 읍 인구는 1995년에 348만 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420만 명이 되었다. 면 인구는 608만 명에서 45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 인구 코호트별 추계를 실시한 결과, 2015년과 2020년 농어촌 인구는 각각 919만 명, 98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 총 인구 중 농어촌 인구의 비율은 2010년 18.0%를 기록한 후 2015년에 18.1%, 2020년에 19.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1. 읍·면 지역의 인구 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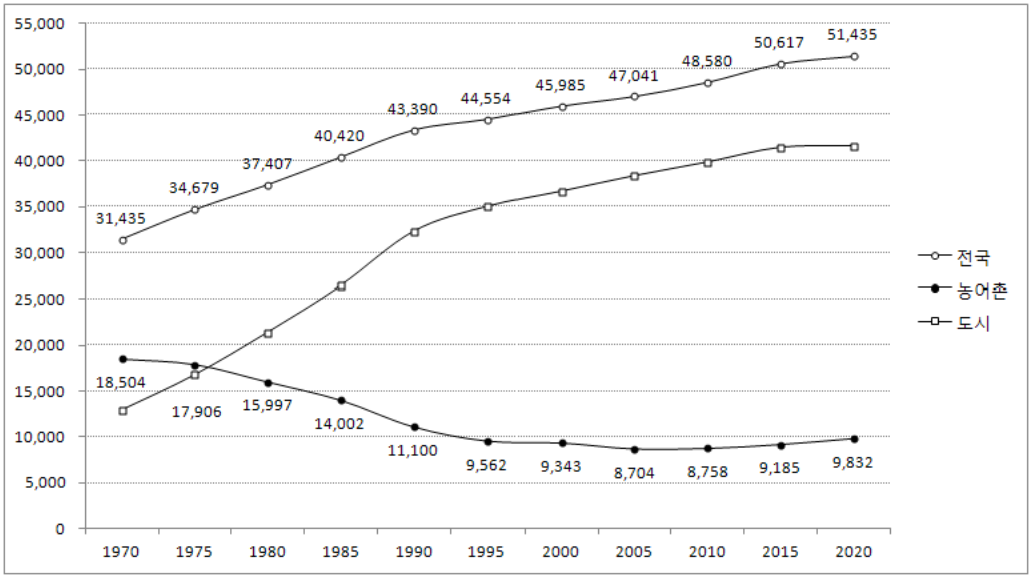
단위: 천 명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증가율 ('70~'10)
전국	31,435	34,679	37,407	40,420	43,390	44,554	45,985	47,041	48,580	50,617	51,435	54.5%
농어촌	18,504	17,906	15,997	14,002	11,100	9,562	9,343	8,704	8,758	9,185	9,832	-52.7%
읍	2,850	3,720	4,537	4,814	3,602	3,481	3,742	3,923	4,200	-	-	47.4%
면	15,654	14,185	11,461	9,187	7,498	6,081	5,601	4,781	4,558	-	-	-70.9%
도시	12,931	16,773	21,409	26,418	32,290	34,992	36,642	38,338	39,823	41,432	41,603	208.0%
농어촌 인구의 비율	58.9%	51.6%	42.8%	34.6%	25.6%	21.5%	20.3%	18.5%	18.0%	18.1%	19.1%	

주: 2015년과 2020년 전국 인구 추계는 통계청이 발표한 전망치(중위가정)이다.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그림 6-1. 농어촌 지역의 인구 변화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농어촌 인구의 연령대별 분포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지만, 경제활동 측면에서 본다면 2020년의 연령별 인구 분포 상황은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표 6-2〉.

- 농어촌의 생산활동가능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15세~64세 연령층 인구가 2000년에 약 623만 명(66.7%)이었던 것이 2010년에 566만 명(64.7%)으로 줄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지금보다 상당히 증가하여 약 652만 명(6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0년에는 30대(15.0%)가 농어촌 인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2010년에는 40대(14.7%)로 바뀌었다. 2020년에는 50대 연령층이(15.8%)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어촌 인구 전체는 지속적으로 고령화되지만, 중장년층(40대 및 50대) 인구 계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이 농어촌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표 6-2. 농어촌 인구의 연령 분포 변화

단위: 천 명

연령대	2000년			2010년			2020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0~9세	630	566	1197 (12.8%)	406	378	784 (9.0%)	399	374	773 (7.9%)
10~19세	621	576	1197 (12.8%)	540	482	1022 (11.7%)	507	461	968 (9.8%)
20~29세	730	568	1298 (13.9%)	531	399	930 (10.6%)	601	470	1070 (10.9%)
30~39세	742	664	1405 (15.0%)	636	549	1185 (13.5%)	678	554	1231 (12.5%)
40~49세	632	587	1219 (13.0%)	688	600	1288 (14.7%)	785	647	1432 (14.6%)
50~59세	492	549	1041 (11.1%)	617	615	1233 (14.1%)	797	756	1553 (15.8%)
60~69세	504	654	1158 (12.4%)	466	548	1014 (11.6%)	642	679	1321 (13.4%)
70~79세	239	385	625 (6.7%)	375	564	939 (10.7%)	396	547	942 (9.6%)
80세 이상	61	143	204 (2.2%)	109	254	363 (4.1%)	175	366	541 (5.5%)
15~64세	3207	3024	6230 (66.7%)	2994	2668	5662 (64.7%)	3488	3033	6521 (66.3%)

주: 2020년 연령별 인구는 추정치이다.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1.2. 도시와 농어촌 사이의 인구 이동

○ 2010년에 도시(동)에서 농어촌(읍·면)으로 거주지를 옮긴 '향촌형 인구 이동'의 총량이 약 92만 6,125명이었다. 그 반대 방향의 이동인 '향도형 인구 이동'의 총량 82만 9,814명에 비해 훨씬 많았다〈표 6-3〉.

- 2000년대 들어 '향촌형 인구 이동' 규모가 '향도형 인구 이동' 규모보다 더 커지기 시작했다.

○ 2005년에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인구 이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20대였다. 그런데 2010년 들어서는 변화가 있었다. '향촌형 인구 이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 집단은 30대 연령층이었다〈표 6-4〉.

- 2010년의 '향촌형 인구 이동'에서 40세 이상 연령층의 구성비가 2005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표 6-3. 동과 읍·면 사이의 인구 이동

단위: 명

구분	동→읍 (A)	동→면 (B)	동→읍·면 (A+B)	읍→동 (C)	면→동 (D)	읍·면→동 (C+D)	(A+B) /(C+D)
2001년	433,014 (4.7%)	547,565 (5.9%)	980,579 (10.6%)	375,899 (4.0%)	555,829 (6.0%)	931,728 (10.0%)	1.05
2005년	441,606 (3.7%)	482,584 (4.0%)	924,190 (7.7%)	422,535 (3.5%)	501,766 (4.2%)	924,301 (7.7%)	1.00
2010년	451,297 (4.0%)	474,828 (4.2%)	926,125 (8.3%)	378,937 (3.4%)	450,877 (4.0%)	829,814 (7.4%)	1.12

주: 괄호 안의 백분율은 당해 연도 전국 인구 이동 총량 가운데 해당되는 유형의 인구 이동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각 연도

표 6-4. 향촌 및 향도 인구 이동의 연령 분포

단위: 명

연령대	2005년		2010년	
	동→읍·면	읍·면→동	동→읍·면	읍·면→동
0~9세	124,751 (13.5%)	129,887 (14.1%)	100,973 (10.9%)	92,899 (11.2%)
10~19세	89,970 (9.7%)	92,072 (10.0%)	98,451 (10.6%)	88,387 (10.7%)
20~29세	209,131 (22.6%)	244,862 (26.5%)	177,352 (19.1%)	185,503 (22.4%)
30~39세	202,359 (21.9%)	198,366 (21.5%)	197,968 (21.4%)	176,223 (21.2%)
40~49세	133,354 (14.4%)	113,410 (12.3%)	147,078 (15.9%)	121,050 (14.6%)
50~59세	74,582 (8.1%)	56,931 (6.2%)	104,134 (11.2%)	78,582 (9.5%)
60세 이상	90,043 (9.7%)	88,773 (9.6%)	100,169 (10.8%)	87,170 (10.5%)
전체	924,190 (100.0%)	924,301 (100.0%)	926,125 (100.0%)	829,814 (100.0%)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각 연도

○ 도농통합시 및 군으로의 '향촌형 인구 이동' 상위 15위권에 속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수도권이거나 대도시에 가까운 곳들이다〈표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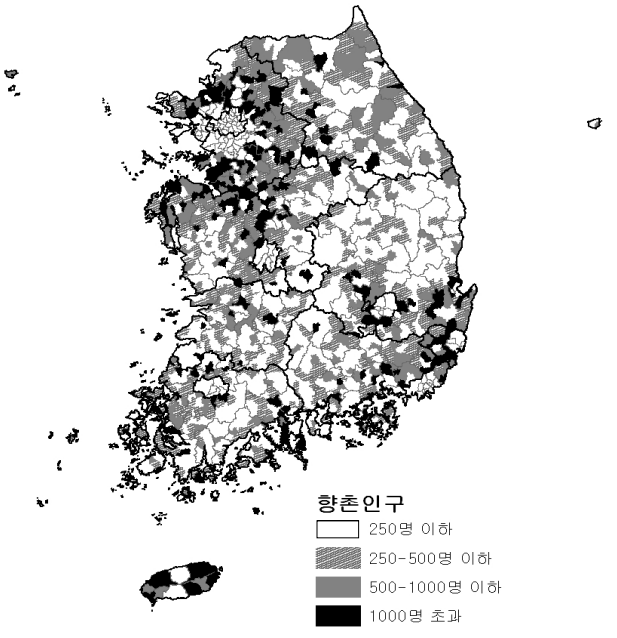
표 6-5.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은 상위 15대 도농통합시와 군

단위: 명

도농통합시	2010년 향촌 인구	군	2010년 향촌 인구
남양주시	64,384	기장군	20,264
파주시	54,049	울주군	20,073
화성시	28,432	청원군	17,183
김해시	22,088	달성군	15,344
광주시	20,644	당진군	12,575
김포시	19,421	칠곡군	10,542
아산시	19,091	양평군	10,471
안성시	15,907	완주군	10,316
평택시	15,022	무안군	8,269
용인시	14,600	연기군	7,710
포항시	13,628	여주군	7,279
포천시	12,179	고성군	7,022
천안시	11,998	음성군	6,155
양산시	11,711	화순군	5,436
이천시	11,540	영암군	5,299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 각 연도.

그림 6-2. 읍·면별 향촌 인구 분포



1.3. 마을 거주 인구

○ 2010년 현재 농어촌에 소재하는 마을(행정리) 수는 3만 6,498개이다. 2005년에 비해 457개(1.3%) 증가하였다〈표 6-6〉.

- 읍 지역에 8,212개(22.5%), 면 지역에 2만 8,286개(77.5%)가 분포한다.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읍 지역에서 마을 수는 6.8% 증가했음에 비해, 면 지역에서는 0.2% 감소하였다.

○ 2010년에 농어촌 마을당 평균 거주 가구 수는 48.9호였다. 20~79호 규모의 마을이 읍·면의 전체 농어촌 마을의 66.1%를 차지한다〈표 6-7〉.

- '20~39호' 거주 마을의 비율이 29.2%로 가장 높다.
- '20호 미만' 거주 마을이 8.5%를 차지하며, '300호 이상' 거주 마을은 5.6%였다.
- 거주 가구 수가 20호 미만인 '인구 과소화 마을' 수는 2005년에 2,048개였는데 2010년에는 3,091개로 66.3% 증가하였다.

표 6-6. 농어촌 마을 수의 변화

구분	2005	2010	증 감	증감률
마을 수	36,041	36,498	457	1.3%
읍 지역	7,686	8,212	526	6.8%
면 지역	28,355	28,286	△69	-0.2%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지역조사, 각 연도.

표 6-7. 농어촌 마을의 거주 가구 수 분포

단위: 개

연도	합계	19가구 이하	20~39	40~59	60~79	80~99	100~149	150~199	200~299	300가구 이상	중위 가구수 (호)
2005년	36,041 (100.0%)	2,048 (5.7%)	9,090 (25.2%)	8,690 (24.1%)	5,288 (14.7%)	2,886 (8.0%)	3,253 (9.0%)	1,408 (3.9%)	1,334 (3.7%)	2,044 (5.7%)	54.0
2010년	36,498 (100.0%)	3,091 (8.5%)	10,642 (29.2%)	8,641 (23.7%)	4,824 (13.2%)	2,467 (6.8%)	2,525 (6.9%)	1,083 (3.0%)	1,186 (3.2%)	2,039 (5.6%)	48.9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지역조사, 각 연도.

○ 인구 과소화 마을은 읍보다 면 지역에 훨씬 더 많다. 인구 과소화 마을의 87.5%인 2,706개가 면 지역에 소재한다〈표 6-8〉.

- 읍 지역에 소재한 8,212개 마을 가운데 인구 과소화 마을은 385개로 그 비율이 4.7%에 불과했다.
- 그에 비해 면 지역에 소재한 2만 8,286개 마을 가운데 인구 과소화 마을은 2,706개로 그 비율이 33.0%였다.
- 시·군과 읍·면을 교차 비교하면 군의 면 지역에 인구 과소화 마을이 가장 많다(1,785개). 그 다음으로는 시의 면 지역(921개), 군의 읍 지역(271개), 시의 읍 지역(114개)의 순이다.

○ 〈그림 6-3〉은 인구 과소화 마을의 비중이 높은 읍·면 지역의 지리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읍·면의 전체 마을 가운데 인구 과소화 마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읍·면들은 대부분 호남 지역에 소재한다.

- 충청북도와 백두대간 동쪽 지역에도 인구 과소화 마을 비율이 높은 읍·면들이 일부 분포하고 있으나, 호남 지역만큼 많지는 않다.
- 수도권 인근 지역에는 인구 과소화 마을 비율이 높은 읍·면이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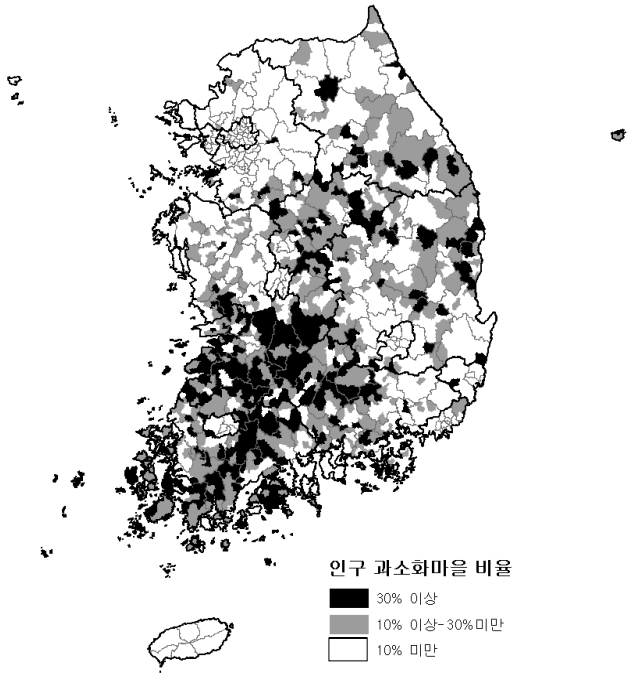
표 6-8. 행정구역 유형별 거주 가구 20호 미만 인구 과소화 마을 수

단위: 개

연 도	구 분	군 지역			시 지역			전체
		읍부	면부	소계	읍부	면부	소계	
2005년	인구 과소화 마을 수	111 (2.5%)	1,239 (7.3%)	1,350 (6.3%)	59 (1.9%)	639 (5.6%)	698 (4.8%)	2,048 (5.7%)
	전체 마을 수	4,516 (100.0%)	16,944 (100.0%)	21,460 (100.0%)	3,170 (100.0%)	11,411 (100.0%)	14,581 (100.0%)	36,041 (100.0%)
2010년	인구 과소화 마을 수	271 (5.8%)	1,785 (10.6%)	2,056 (9.5%)	114 (3.3%)	921 (8.1%)	1,035 (6.9%)	3,091 (8.5%)
	전체 마을 수	4,712 (100.0%)	16,872 (100.0%)	21,584 (100.0%)	3,500 (100.0%)	11,414 (100.0%)	14,914 (100.0%)	36,498 (100.0%)

주: '인구 과소화 마을'은 거주 가구가 20호 미만인 행정리를 뜻한다.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지역조사, 각 연도.

그림 6-3. 인구 과소화 마을의 지리적 분포



1.4. 고령화 실태

○ 농어촌 인구 감소 추세는 거의 멈춘 것 같지만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농어촌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7%였던 것이 2010년에는 20.6%가 되었다〈표 6-9〉. 전국 및 도시 지역 고령 인구 비율은 각각 11.3%와 9.2%였다.

-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쯤에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이 27.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2000년 기준 전국 읍·면 가운데 54.5%의 읍·면에서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었다. 그런데 2010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읍·면이 1,150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 읍·면의 81.7%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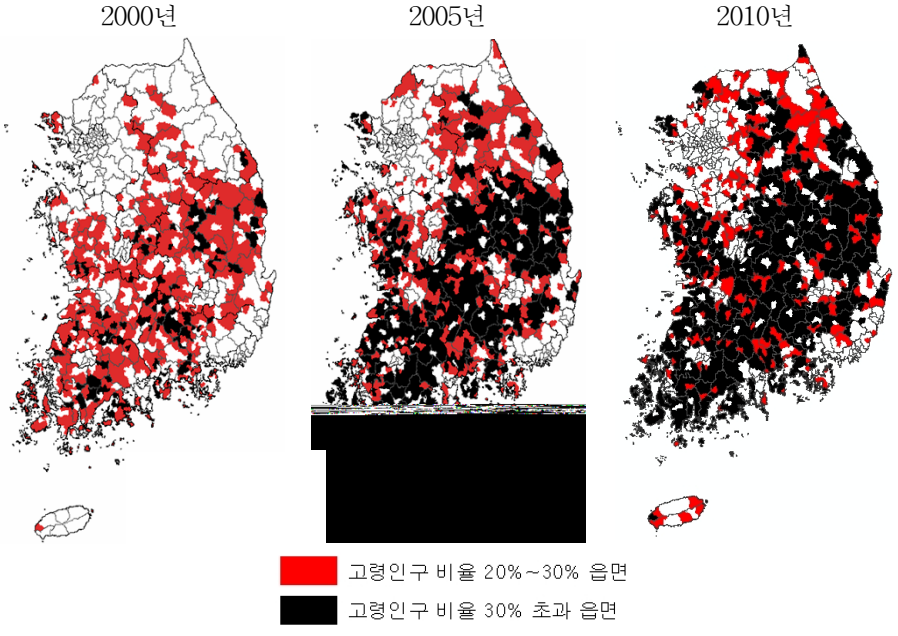
표 6-9. 농어촌 지역 인구 추계에 따른 고령 인구 비율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농어촌 인구	11,100	9,562	9,343	8,704	8,758	9,160	9,613
농어촌 65세 이상 인구	1,004	1,126	1,370	1,618	1,808	2,223	2,670
농어촌 고령 인구 비율	9.0%	11.8%	14.7%	18.6%	20.6%	24.3%	27.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그림 6-4. 고령화된 읍·면 지역의 분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1.5. 가구 실태

○ 2010년 전국 1,734만 가구 가운데 19.1%에 해당하는 약 331만 가구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21.6%에 비해 그 비율이 약간 감소하였다〈표 6-10〉.

- 농어촌 가구 수는 2000년에 약 305만 호였던 것이 조금씩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도시의 가구 수는 같은 기간 동안 1,110만 호에서 1,403만 호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 읍 지역의 가구 수는 10년 동안 약 115만 호에서 149만 호로 늘어나 도시 지역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면 지역 가구 수는 약 190만 호에서 182만 호로 감소하였다.

○ 농어촌 지역에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는 약 109만 호가 거주한다. 농어촌 가구의 33.0%를 차지한다. 도시 거주 가구 가운데 고령 가구의 비율 14.4%의 두 배가 넘는다.
- 농어촌 고령 가구 비율은 2000년에 25.2%였던 것이 빠르게 증가하여 33.0%에 이르렀다. 특히, 면 지역에서 크게 증가하여 2010년에 42.1%를 기록하였다.

표 6-10. 농어촌의 가구 및 고령 가구 수 변화

단위: 호

	가구(A)			고령 가구(B)		
	2000년	2005년	2010년	2000년	2005년	2010년
전국	14,152,576	15,887,128	17,339,422	1,725,859 (12.2%)	2,448,348 (15.4%)	3,111,011 (17.9%)
도시	11,102,416	12,744,940	14,031,069	956,300 (8.6%)	1,481,904 (11.6%)	2,018,742 (14.4%)
농어촌	3,050,160	3,142,188	3,308,353	769,559 (25.2%)	966,444 (30.8%)	1,092,269 (33.0%)
- 읍부	1,146,654	1,318,939	1,487,490	192,478 (16.8%)	266,664 (20.2%)	325,054 (21.9%)
- 면부	1,903,506	1,823,249	1,820,863	577,081 (30.3%)	699,780 (38.4%)	767,215 (42.1%)

주: 백분율은 좌측(가구)의 상응하는 칸을 분모로 하는 고령 가구의 비율, 즉 B/A를 뜻한다.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가구 실태 부문 자료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동향 가운데 하나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에서나 농어촌에서나 1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 도시에서는 젊은 연령층의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농어촌에서는 주로 노인 독거가구가 증가하였다 〈표 6-11〉.
-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노인 독거가구'는 농어촌 지역에 약

44만 가구가 있다. 전국 노인 독거가구의 41.3%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셈이다.
- 도시 가구 중 노인 독거가구의 비율은 4.5%임에 비해, 농어촌 가구 가운데 노인 독거가구의 비율은 그 세 배 가까이 되는 13.3%이다.
- 읍 지역 가구 중 노인 독거가구의 비율은 2000년에 5.7%였던 것이 2010년에 8.1%로 증가하였다. 면 지역에서는 11.2%에서 17.6%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6-11. 농어촌의 노인 독거가구 수 변화

단위: 호

	가구(A)			노인독거 가구(B)		
	2000년	2005년	2010년	2000년	2005년	2010년
전국	14,152,576	15,887,128	17,339,422	542,690 (3.8%)	782,708 (4.9%)	1,066,365 (6.1%)
도시	11,102,416	12,744,940	14,031,069	263,233 (2.4%)	415,899 (3.3%)	625,639 (4.5%)
농어촌	3,050,160	3,142,188	3,308,353	279,457 (9.2%)	366,809 (11.7%)	440,726 (13.3%)
- 읍부	1,146,654	1,318,939	1,487,490	65,846 (5.7%)	93,776 (7.1%)	120,584 (8.1%)
- 면부	1,903,506	1,823,249	1,820,863	213,611 (11.2%)	273,033 (15.0%)	320,142 (17.6%)

주: 백분율은 좌측(가구)의 상응하는 칸을 분모로 하는 노인 독거가구의 비율, 즉 B/A를 뜻한다.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조손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에 4만 5,225호였던 우리나라의 조손 가구 수가 2010년에는 11만 9,294호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손 가구 증가 현상은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 모두 나타났다〈표 6-12〉.
- 지난 10년 동안 도시 지역의 조손 가구 수는 2만 5,996호에서 8만 6,668호로 3.3배 증가하였다. 농촌 지역에서는 1만 9,229호에서 3만 2,626호로 1.7배 증가하였다.
- 도시 가구 중 조손 가구의 비율은 0.62%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그 비율은 0.99%에 달한다. 특히, 면 지역에서는 1.09%나 된다.

○ 2010년 현재, 전국의 다문화 가구 38만 6,977호 가운데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구는 7만 1,908호로 18.6%를 차지한다.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거주 가구 가운데 다문화 가구의 비율은 2.2%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13〉.
- 읍 지역과 면 지역 거주 가구 가운데 다문화 가구의 비율은 다소 차이가 난다.

읍 지역의 다문화 가구 비율은 2.1%, 면 지역의 다문화 가구 비율은 2.3%로 면 지역에서 약간 높다.

표 6-12. 농어촌의 조손 가구 수 변화

단위: 호

	가구(A)			조손 가구(B)		
	2000년	2005년	2010년	2000년	2005년	2010년
전국	14,152,576	15,887,128	17,339,422	45,225 (0.32%)	58,101 (0.37%)	119,294 (0.69%)
도시	11,102,416	12,744,940	14,031,069	25,996 (0.23%)	36,468 (0.29%)	86,668 (0.62%)
농어촌	3,050,160	3,142,188	3,308,353	19,229 (0.63%)	21,633 (0.69%)	32,626 (0.99%)
- 읍부	1,146,654	1,318,939	1,487,490	5,725 (0.50%)	7,216 (0.55%)	12,802 (0.86%)
- 면부	1,903,506	1,823,249	1,820,863	13,504 (0.71%)	14,417 (0.79%)	19,824 (1.09%)

주: 백분율은 좌측(가구)의 상응하는 칸을 분모로 하는 조손 가구의 비율, 즉 B/A를 뜻한다.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표 6-13. 농어촌의 다문화 가구 수

단위: 가구

	다문화 가구	1인 가구	2인 이상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내국인 (귀화 등)	외국인		내국인 (출생) + 내국인 (귀화 등)	내국인 (출생) + 외국인	외국인 + 외국인	기타	
전국	386,977	118,102	6,551	111,551	231,039	47,412	98,683	70,014	14,930	37,836
	(100.0%)	(30.5%)	(1.7%)	(28.8%)	(59.7%)	(12.3%)	(25.5%)	(18.1%)	(3.9%)	(9.8%)
도시	315,069	102,980	6,080	96,900	188,869	34,140	76,514	64,626	13,589	23,220
	(100.0%)	(32.7%)	(1.9%)	(30.8%)	(59.9%)	(10.8%)	(24.3%)	(20.5%)	(4.3%)	(7.4%)
농어촌	71,908	15,122	471	14,651	42,170	13,272	22,169	5,388	1,341	14,616
	(100.0%)	(21.0%)	(0.7%)	(20.4%)	(58.6%)	(18.5%)	(30.8%)	(7.5%)	(1.9%)	(20.3%)
-읍부	30,779	7,145	282	6,863	18,193	5,209	9,318	2,917	749	5,441
	(100.0%)	(23.2%)	(0.9%)	(22.3%)	(59.1%)	(16.9%)	(30.3%)	(9.5%)	(2.4%)	(17.7%)
-면부	41,129	7,977	189	7,788	23,977	8,063	12,851	2,471	592	9,175
	(100.0%)	(19.4%)	(0.5%)	(18.9%)	(58.3%)	(19.6%)	(31.2%)	(6.0%)	(1.4%)	(22.3%)

주 1) 내국인(출생)은 국적법상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뜻한다.
2) 내국인(귀화 등)은 국적법상 출생 이외의 방법(귀화, 인지 등)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13 자를 뜻한다.
3) 이 자료에서 '다문화 가구'의 개념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규정된 '다문화 가정'과 다르다.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표 6-14. 농어촌의 다문화 가구원 수

단위: 명

	다문화 가구원	1인 가구원	2인 이상 친족 가구원							비친족 가구원
			내국인 (귀화 등)	외국인		내국인 (출생) + 내국인 (귀화 등)	내국인 (출생) + 외국인	외국인 + 외국인	기타	
전국	939,379	118,102	6,551	111,551	716,336	169,962	336,650	162,963	46,761	104,941
	(100.0%)	(12.6%)	(0.7%)	(11.9%)	(76.3%)	(18.1%)	(35.8%)	(17.3%)	(5.0%)	(11.2%)
도시	726,043	102,980	6,080	96,900	561,952	116,875	252,765	150,303	42,009	61,111
	(100.0%)	(14.2%)	(0.8%)	(13.3%)	(77.4%)	(16.1%)	(34.8%)	(20.7%)	(5.8%)	(8.4%)
농어촌	213,336	15,122	471	14,651	154,384	53,087	83,885	12,660	4,752	43,830
	(100.0%)	(7.1%)	(0.2%)	(6.9%)	(72.4%)	(24.9%)	(39.3%)	(5.9%)	(2.2%)	(20.5%)
-읍부	85,024	7,145	282	6,863	61,839	19,470	33,053	6,757	2,559	16,040
	(100.0%)	(8.4%)	(0.3%)	(8.1%)	(72.7%)	(22.9%)	(38.9%)	(7.9%)	(3.0%)	(18.9%)
-면부	128,312	7,977	189	7,788	92,545	33,617	50,832	5,903	2,193	27,790
	(100.0%)	(6.2%)	(0.1%)	(6.1%)	(72.1%)	(26.2%)	(39.6%)	(4.6%)	(1.7%)	(21.7%)

주 1) 내국인(출생)은 국적법상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뜻한다.
2) 내국인(귀화 등)은 국적법상 출생 이외의 방법(귀화, 인지 등)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뜻한다.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 농어촌의 다문화 가구 통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 도시 지역과 비교할 때 농어촌 지역에서는 '1인 가구' 및 '1인 가구원' 수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표 6-13, 표 6-14〉. 결혼 이민을 전제로 성립하는 다문화 가구가 도시에 비해 더 많음을 뜻한다.
- 다문화 가구의 가구원 중 '귀화인과 결혼했거나 이민자와 결혼한 2인 이상 친족 가구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도시 지역은 50.9%이고 농어촌 지역은 64.2%이다〈표 6-14〉.
-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 다문화 가구에서 '비친족 가구원' 수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표 6-14〉. 내국인과 결혼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가 농어촌 지역의 일반 가구에서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뜻한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제조업 분야나 농업 분야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농어촌의 산업과 일자리

2.1. 취업자 수

○ 전국 사업체기초통계를 볼 때, 농어촌 지역 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총 4만 714명이 줄었다〈표 6-15〉.

- 같은 기간 농업 종사자 수는 59만 5,000명이 줄어 무려 26.5%라는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였다.
- 비농업 부문 종사자 수는 55만 4,286명이 증가했다(22.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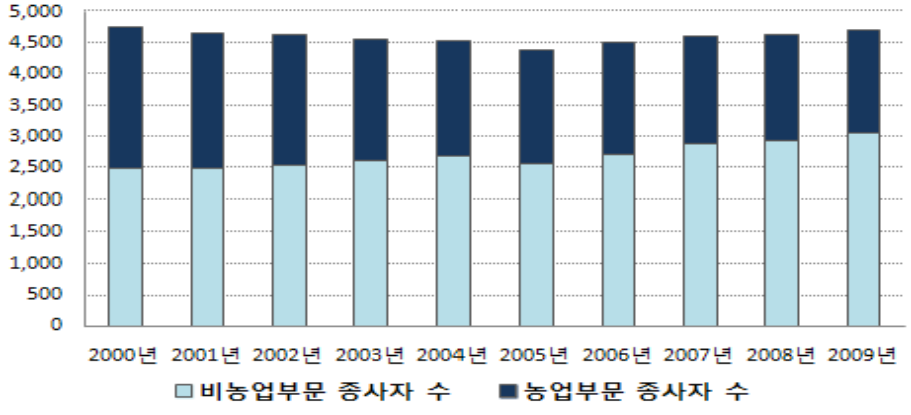
표 6-15. 농어촌 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 변화

단위: 천 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량	증가율
비농업부문 종사자 수	2,507	2,500	2,557	2,620	2,698	2,582	2,726	2,885	2,948	3,061	554	22.1
농업부문 종사자 수	2,243	2,148	2,069	1,950	1,825	1,815	1,785	1,726	1,686	1,648	-595	-26.5
총 취업자 수	4,750	4,648	4,626	4,570	4,523	4,397	4,511	4,611	4,634	4,709	-41	-0.9

자료: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농림수산식품부).

그림 6-5. 농업 및 비농업 부문 농어촌 취업자 수 변화



○ 도시와 비교할 때 농어촌 취업자 가운데에는 근로자(정규직 및 비정규직)와 고용주의 비중이 낮고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 학력 수준도 전반적으로 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다〈표 6-16〉.

- 특히, 여성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낮다. 대신에 무급 가족 종사자 비율이 매우 높다.

○ 〈표 6-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수준의 부문산업별 취업자 중 농어촌 취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부문이 가장 높았다(82.0%). 그 다음으로는 '광업(42.7%)',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26.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1.2%)', '제조업(18.0%)' 등의 순이었다.

○ 농어촌 지역의 취업자를 전체 집단으로 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 역시 '농림어업'이었다(148만 8,655명, 31.8%). '제조업' 종사자 수는 약 68만 4,855명으로 농어촌 지역 취업자의 14.6%를 차지하였다.

- '도매업 및 소매업(9.5%)', '숙박 및 음식점업(6.7%)', '건설업(5.8%)' 등 나머지 산업의 경우 10% 미만의 비율을 보였다.

표 6-16. 농어촌 취업자의 고용 구조

단위: %

	농어촌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상용근로자	38.7	27.6	34.0	54.4	44.9	50.4
임시근로자	9.1	15.3	11.8	9.6	20.2	14.0
일용근로자	6.0	6.3	6.1	6.3	4.7	5.7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6.6	2.8	5.0	8.6	3.2	6.4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	37.4	19.8	29.9	20.2	14.4	17.7
무급 가족종사자	2.1	28.2	13.3	0.9	12.7	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2009년.

표 6-17.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주요 부문별 도시 및 농어촌 취업자 수 비교

단위: 명

산업대분류	취업자 수							
	농촌				도시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감률(%)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감률(%)
농업, 임업 및 어업	1,659,530	1,523,661	1,488,655	-5.3	235,891	309,339	326,345	17.6
제조업	599,766	624,766	684,855	6.9	3,545,031	3,303,234	3,125,145	-6.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0,762	16,955	15,971	-12.3	62,710	70,045	82,029	14.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5,401	18,601	20.8	-	56,599	52,399	-7.4
건설업	255,369	272,593	271,898	3.2	1,621,618	1,526,407	1,452,102	-5.4
도매 및 소매업	445,017	448,829	443,402	-0.2	3,212,901	3,170,171	3,155,598	-0.9
운수업	338,993	165,765	182,438	-26.6	1,682,704	1,073,235	1,067,562	-20.3
숙박 및 음식점업	155,163	307,852	311,305	41.6	1,054,388	1,698,148	1,555,695	21.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096	31,514	38,157	23.3	245,597	571,486	633,843	60.6
금융 및 보험업	87,497	80,671	86,167	-0.8	754,348	753,329	663,833	-6.2
부동산업 및 임대업	39,946	42,215	57,073	19.5	461,573	435,785	431,927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133,755	160,306	169,950	12.7	1,753,419	1,600,694	1,673,050	-2.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40,668	166,371	248,797	33	667,135	678,629	922,203	17.6
교육 서비스업	166,327	195,695	227,150	16.9	1,534,371	1,611,305	1,635,850	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547	102,861	163,966	37.6	682,949	771,139	882,034	1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6,544	69,427	59,528	13.1	444,911	381,573	305,472	-17.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4,265	186,173	182,783	-3	1,192,009	1,128,827	1,015,217	-7.7

자료: 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각 연도.

2.2. 산업 부문별 고용 증감 추이

○ 농어촌 지역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한 산업 부문은 플라스틱 제조업,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일부 제조업 분야이다. 그 다음으로는 복지시설 운영업, 숙박시설 운영업, 음식점업 등의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하였다〈표 6-18〉.

- 증가율만을 보면 '복지시설 운영업' 부문이 두드러진다.

○ 한편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종합소매업,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지역 내수경제'의 위축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6-18. 고용이 현저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산업분야(2000~2009)

고용이 증가한 부문			고용이 감소한 부문		
부문	증감량(명)	증감률(%)	부문	증감량(명)	증감률(%)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0,727	85.9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0,193	-86.1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4,629	94.8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20,098	-32.2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251	56.7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4,771	-92.1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29,804	150.9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4,435	-62.5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4,067	73.5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3,449	-28.8
숙박시설 운영업	22,737	73.1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2,656	-39.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22,330	318.3	보험업	-10,947	-52.9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2,283	67.1	종합 소매업	-10,830	-14.2
음식점업	21,897	10.5	어로 어업	-9,310	-96.2
전자부품 제조업	18,112	61.1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8,117	-35.8

주 1) 2000년과 2008년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소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2) 읍·면 지역의 자료이다.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2000년 및 2009년.

2.3.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전망

○ 농어촌 지역의 전체 취업자 수는 2020년까지 연평균 0.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6-19〉. 이는 2018년까지 우리나라 전체의 고용이 연평균 0.8%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자료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치이다.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자 수가 가장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가사서비스업'이다. 연평균 4.0% 감소하여 2020년에는 취업자 수가 1만 3,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 다음으로는 '어업(연평균 3.1% 감소)', '광업(연평균 2.5% 감소)', '농업 및 임업(연평균 2.1% 감소)' 등의 순이다.
- 그리하여 2020년에는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자 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대분류 수준의 산업 부문이 '농업 및 임업'에서 '제조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부문은 '사업서비스업'이다. 연평균 2.5% 증가하여 2020년에는 그 취업자 수가 34만 4,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 다음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연평균 2.1% 증가)', '부동산 및 임대업(연평균 1.7% 증가) 등의 순이다.

○ 2020년에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 부문은 제조업(88만 4,000명)이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농업 및 임업(90만 1,000명)', '도매 및 소매업(44만 6,000명)'의 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19. 농어촌의 산업 대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단위: 천 명

산업대분류	종사자수 전망				증감률 %
	2011	2014	2017	2020	
농업 및 임업	1,109	1,029	961	901	-2.05
어업	30	27	24	22	-3.06
광업	8	8	7	6	-2.47
제조업	992	990	988	984	-0.08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6	26	26	26	0.13
건설업	454	451	447	443	-0.25
도매 및 소매업	522	493	468	446	-1.57
숙박 및 음식점업	478	447	420	396	-1.87
운수업	327	336	344	349	0.65
통신업	44	46	47	48	0.77
금융 및 보험업	140	144	148	151	0.74
부동산 및 임대업	105	113	119	124	1.7
사업서비스업	269	298	323	344	2.5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98	202	205	207	0.45
교육 서비스업	289	287	285	283	-0.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87	204	219	230	2.09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97	103	109	113	1.52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69	388	405	418	1.26
가사 서비스업	19	17	14	13	-3.97
국제 및 외국기관	7	7	7	7	0.06
계	5,669	5,616	5,564	5,511	-0.28

자료: 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2001년, 2004년, 2007년.

○ 앞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자리 증가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분류 산업은 '기타 교육기관(2만 7,188명 증가, 16만 6,988명)'이다〈표 6-20〉.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평생학습이 강조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업(2만 3,104명 증가, 15만 2,089명)'과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2만 2,853명 증가, 11만 3,175명)'도 고령화 추세와 사업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6-20. 농어촌의 일자리 증가 산업의 취업자 수 전망

단위: 명

산업소분류	종사자수			종사자수 전망				증가
	2001	2004	2007	2011	2014	2017	2020	
기타교육기관	97,349	90,910	161,349	139,800	150,575	159,530	166,988	27,188
의료업	89,469	87,258	101,454	128,985	138,160	145,769	152,089	23,104
사업시설유지관리및고용서비스업	50,570	42,439	102,959	90,322	99,330	106,860	113,175	22,853
기타조립금속제품제조및금속처리업	36,725	38,657	73,140	76,560	85,379	92,771	98,989	22,429
기타회원단체	23,103	47,074	58,157	60,112	67,170	73,087	78,067	17,955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24,802	9,417	60,755	50,142	56,511	61,858	66,365	16,222
비수용복지시설	8,740	14,038	54,706	40,371	46,424	51,517	55,822	15,451
부동산관련서비스업	34,773	64,694	79,372	76,700	82,727	87,738	91,914	15,214
자연과학연구개발업	2,055	6,476	21,066	19,640	23,124	26,062	28,551	8,911
도로화물운송업	73,068	119,161	125,130	131,520	135,188	138,099	140,386	8,866
자동차부품제조업	81,471	63,822	67,396	66,372	69,902	72,803	75,185	8,813
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업	8,649	5,890	23,777	21,613	25,009	27,869	30,288	8,675
입법및일반정부행정	107,018	96,134	150,889	126,098	129,600	132,378	134,560	8,462
무점포소매업	63,598	75,406	82,769	72,397	75,776	78,537	80,790	8,393
그외기타서비스업	41,961	64,399	63,306	72,912	76,277	79,027	81,269	8,357
작물재배및축산복합농업	19,960	1,560	105	25,815	28,209	30,963	34,116	8,301
미용,욕탕및유사서비스업	63,643	75,720	78,880	90,277	93,466	96,036	98,096	7,820
반도체및기타전자부품제조업	78,623	51,824	101,203	81,426	84,298	86,612	88,467	7,041
창고업	6,566	8,782	18,300	21,981	24,723	27,023	28,962	6,980
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제조업	14,008	37,450	39,143	40,164	42,927	45,217	47,117	6,952

자료: 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2001년, 2004년, 2007년.

○ 2020년에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분류 산업은 '작물재배업'이다. 연평균 2.4%씩 감소함에도 여전히 80만 명 이상의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표 6-21〉.

- 그 다음으로 '음식점업(연평균 1.97% 감소, 35만 382명)', '기타 교육기관(연평균 1.8% 증가, 16만 6,988명)', '의료업(연평균 1.66% 증가, 15만 2,089명)'의 순이다.

- 다수가 종사하는 산업에는 전반적으로 서비스업(교육, 운송, 고용, 미용, 세탁, 혼례와 장례, 경비, 청소 등)이 많다.

표 6-21. 농어촌의 다수 종사 산업(소분류)의 종사자 수 전망

단위: 명

산업소분류	종사자수			종사자수 전망				증감률 %
	2001	2004	2007	2011	2014	2017	2020	
작물재배업	1,374,331	1,144,335	1,123,998	1,023,333	939,843	866,995	802,877	-2.40
음식점업	448,044	535,145	506,478	427,548	398,449	372,943	350,382	-1.97
기타교육기관	97,349	90,910	161,349	139,800	150,575	159,530	166,988	1.79
의료업	89,469	87,258	101,454	128,985	138,160	145,769	152,089	1.66
도로화물운송업	73,068	119,161	125,130	131,520	135,188	138,099	140,386	0.65
입법및일반정부행정	107,018	96,134	150,889	126,098	129,600	132,378	134,560	0.65
육상여객운송업	111,868	138,689	109,880	117,308	117,848	118,117	118,160	0.07
사업시설유지관리및 고용서비스업	50,570	42,439	102,959	90,322	99,330	106,860	113,175	2.28
종합소매업	193,816	223,571	212,866	130,658	119,694	110,134	101,725	-2.47
기타조립금속제품제조및 금속처리업	36,725	38,657	73,140	76,560	85,379	92,771	98,989	2.60
미용,욕탕및유사서비스업	63,643	75,720	78,880	90,277	93,466	96,036	98,096	0.83
건물건설업	105,731	141,489	113,648	107,069	102,337	98,127	94,345	-1.26
부동산관련서비스업	34,773	64,694	79,372	76,700	82,727	87,738	91,914	1.83
반도체및기타전자부품 제조업	78,623	51,824	101,203	81,426	84,298	86,612	88,467	0.83
건축마무리공사업	57,619	128,690	82,082	89,015	86,696	84,573	82,610	-0.74
그외기타서비스업	41,961	64,399	63,306	72,912	76,277	79,027	81,269	1.09
무점포소매업	63,598	75,406	82,769	72,397	75,776	78,537	80,790	1.10
기타회원단체	23,103	47,074	58,157	60,112	67,170	73,087	78,067	2.65
자동차부품제조업	81,471	63,822	67,396	66,372	69,902	72,803	75,185	1.25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24,802	9,417	60,755	50,142	56,511	61,858	66,365	2.84

자료: 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2001년, 2004년, 2007년.

3 시사점

3.1. 농어촌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시사점

○ 계속된 감소 추세는 거의 멈추고 앞으로는 농어촌 인구가 미세하지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농어촌 인구 증감 추세 반전의 원인은 기대수명 증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농어촌의 합계 출산율, 농어촌 지역의 순유입 인구 증가 등에 있는 것 같다.

○ 인구의 증감 추세가 뒤바뀌는 것은 농어촌의 인구사회학적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임을 뜻한다. 그런데 고령화가 앞으로도 계속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농어촌 지역의 구매력 및 생산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끌어낼 수도 있다.

- 소폭이지만 농어촌 인구가 증가한다면 기본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내수경제 위축과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 추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 전체적인 고령화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40대와 50대의 중장년층 인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령층 인구의 증가는 주로 도시로부터의 이주(귀농 또는 귀촌)에 의해 발생할 것이다. 이 계층이 농어촌 지역 내부의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가 여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 고령화, 인구 과소화 마을 증가, 노인 독거가구 증가, 조손가구 증가, 다문화 가구의 비중 상승 등 농어촌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지역사회의 통합이나 복지와 관련된 과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의 공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증가할 것이며 인구 구성의 복잡성 증대가 예상치 못했던 사회문제들을 낳을 수 있다.

○ 그러한 과제에 대응하는 한 가지 수단은 농어촌 지역사회 내의 인적 자원을 적절한 방식으로 조직하여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귀촌 인구의 직업적 잠재 역량을 활용하는 일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 자원 조직 방식으로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일과 같은 최근의 시도들은 중요한 정책 실험이 될 것이다.

○ 한편,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농어촌 지역 전체에서 균일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상황 변화가 읍 지역보다는 면 지역에서 더 빠르고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다.

○ 사회서비스 전달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면 지역일수록 취약계층 인구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이는 농어촌 주민의 복지나 지역사회의 통합과 관련된 사회정책에 있어 '장소적 차이에 의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 주민의 정주환경 및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정책에서도, 이상과 같은 농어촌 지역사회의 인구사회학적 구성 및 정주체계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3.2. 농어촌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 농어업과의 산업연관 관계에서 전방에 위치한 농식품 산업은 농어촌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무엇보다 농어촌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를 강조한 일련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된 바 있다.

○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순창 고추장, 횡성 한우, 보성 녹차, 의성 마늘, 영광 굴비 등 세간에 알려진 농어촌 지역특화산업 사례들에서 상당한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표 6-22〉.

○ 특정 지역의 제조업이나 관광 부문 성장 사례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소폭의 고

용 감소 추세와는 달리 농어촌에서 고용이 증가한 산업 부문은 보건, 의료, 복지 등과 관계된 사회 서비스업 부문이다. 앞으로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비롯하여 주민의 일상생활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역사회의 자족적 기능을 확보하려는 노력 자체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 농어촌에서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사회서비스업 부문 취업자 수는 80.1% 나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인한 결과이다.

표 6-22. 지역특화 산업 성장과 고용 창출 사례

지역	지역특화 품목	관련 산업 고용증가(증가량, 증가율)
순창군	고추장	장류 제조업(217명, 92.7%)
횡성군	한우	한식 음식점업(227명, 27.3%)
보성군	녹차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114명, 신규창업) 차류 가공업(57명, 29.8%)
의성군	마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21명, 신규창업)
영광군	굴비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1,566명, 2,610%)

주: 고용증가율은 2000년에서 2009년까지의 종사자 수 변화율이다.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각 연도.

표 6-23. 사회서비스분야 농어촌지역 고용 현황(2000~2009)

단위: 명, %

구분	2000	2009	증감량	증감률
사회서비스 분야	104,268	187,757	83,489	80.1
사회서비스 이외 산업분야	2,436,223	2,891,613	455,390	18.7
합계	2,540,491	3,079,370	182,586	21.2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각 연도.

○ 우리의 사회 변동 과정이 반드시 서유럽 국가 등이 걸었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농어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메가트렌드는 유사한 경향을 지닌다. 유럽 농촌사회가 최근에 주목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것이다.

- 유럽의 농촌 지역사회에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고용기회는 농촌관광, 재생에너지, 농촌의 문화 및 자연 유산과 관련된 문화 활동, 경관 보존 관련 활동, 유기농업, 지식기반 산업,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등의 분야이다.

농촌관광은 농가 경제활동 다각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부 등과 같이 농가에서 반(半)고용 상태에 있는 가구원들에게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농촌관광은 농촌 지역경제 일반에 의미 있는 효과를 미치고 있다. 더불어 부수적인 효과로서 농가의 리노베이션과 방치된 건축물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생에너지 역시 농가 수입의 다각화와 농가 내 반고용 상태 가구원에 대한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농지나 휴경지를 활용한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발전도 점증하고 있다. 화석연료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발전에 따라 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제적 유용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시적인 경제적 편익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농촌의 문화유산 및 자연경관과 관련된 문화활동이나 자연·경관 보존도 새로운 고용 기회의 중요한 원천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기농업은 생산과정과 가공과정에서 추가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농업 부문의 구조 조정을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 기회로 여겨진다. 특히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유기농산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역농업의 다양성 보전이 농촌 지역개발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재택근무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농촌 지역에서 실질적인 신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 지역 기업에게 도시 지역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도시 지역에 비해 뒤떨어진 농촌 지역의 인프라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농촌 주민의 기술 및 교육훈련 수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농촌 지역에서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분야의 고용 증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령 인구의 증가, 보건 및 사회 서비스의 도농 격차 등의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의 결과로 평가된다.

(자료: Copus *et al.*, 2006, 농촌 지역 고용 연구)

○ '고용 없는 경제성장'의 징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정책에서 일자리 문제를 논외로 치부할 수는 없다. 더구나 농어촌 지역사회가 '인구학적 의미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문제를 농어촌 정책 영역의 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 여러 농어촌 정책 사업들에서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는 '고용친화적 정책 관리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낮은 인구 밀도, 지역사회 구성원의 구매력 저하 등의 원인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내수경제가 심각한 침체 상황에 빠져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의 재정 지출이 고용 창출과 연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